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동향(6월 4주차)

국가		주요 동향
미국	유통·소비	○ 코로나19로 술집(Bar)과 식당 이용을 못함에 따라 집에서 사서 마실수 있는 맥주와 와인 판매가 대폭 증가. 많은 미국 인구가 여전히 재택근무 하에 있고 레스토랑들이 아직 실내 손님을 못 받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는 소매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맥주, 와인 및 주류를 사들이고 있음 - 닐슨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시작된지 7주간 오프라인 주류 판매액은 21% 증가하였고 온라인 주류 판매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234%를 기록했다고 함. 이와 같은 온라인 주류판매는 소비재 품목 중 가장 빠른 성장세에 있음 ○ 코스트코 등 대형 생필품 매장 코로나 수칙 완화(매장 내 무료 시식 코너 운영 재개, 입장 고객 확대 등)에 전문가들 너무 이르다 경고
	바이어·수입	○ (C, K, Y사) 지속적인 수출용 팽이버섯 위생 검사 필요하며 팽이버섯 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음 ○ 한국 마늘 수입 중이며, 식재료 확산을 위해 도매시장 업자 대상 한국 마늘 샘플 제공 및 반응조사 실시 예정(7-8월) ○ (H사) 코로나19에 따른 홈쿠킹 트렌드에 맞춰 묵은지고등어찜 등 HMR 신제품 개발 및 수입
	기타	○ 지난 5월말 미국 식약청(FDA) 에서는 COVID-19 팬데믹 기간 동안 농산물의 재배, 수확, 포장 및 보관과 관련 새로운 임시 규정을 발표하였음. 해당하는 농장은 농산물의 재배, 수확, 포장 및 보관에 있어 농산물 규정에서 기준하고 있는 위험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규제(농업용수, 토양, 가축, 노동자 교육 및 위생, 농기구 및 장비 등 관련)를 운영하여야 함(출처:FDA 웹사이트 참조) https://www.fda.gov/regulatory-information/search-fda-guidance-documents/temporary-policy-during-covid-19-public-health-emergency-regarding-qualified-exemption-standards, May 22, 2020, FDA ○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가 매일 맨해튼 지역 7곳 등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음
캐나다	유통·소비	○ 코로나19 기간 동안 LCBO(온주 주류판매 담당정부기관)에서 한국산 주류에 대한 온라인 판매 폭증,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한국산 술 판매 전년 동기대비 16.7%, 온라인 구매 946.6% 대폭 증가(6.19, 캐나다한국일보)

인니	기타	○ 인도네시아 반뜬 주정부, 자카르타 수도권과 겹치는 주 내 3개 지역(땅그랑 시·군, 남부 땅그랑)의 대규모사회적제약(PSBB)을 6.28일까지 연장
말련	기타	○ 이르면 RMCO(회복 단계의 이동제한명령) 기간(8.31) 종료 전에 단계적으로 국경 개방할 수 있음(보건부, 6.22) ○ 쿠알라룸푸르 인근지역 정부운영지침 하에 전통시장(아침, 저녁) 및 노점상 운영 재개
두바이	기타	○ 7월 7일부터 여행자 입국 허용(6.21) - 두바이의 위기재난관리 최고위원회(Supreme Committee of Crisis and Disaster Management)는 ①6월 22일부터 사전 허가에 의한 두바이 체류비자 소지외국인의 입국, ②6월 23일부터 두바이 거주민의 해외여행 및 ③7월 7일부터 외국 여행객 및 방문자의 두바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
호주	기타	○ 호주 관광부 장관은 국경봉쇄 해제 올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, 국경폐쇄는 코로나19 진압 성공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가족 장례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계속 금지령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○ 최근 호주 소비자들이 대부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상황으로 한국식품 수요도 안정적이나 9월 이후 고용지원금이 종료되면 실업자 증가 등이 예상되어 수입감소 전망